

정론적론단의 본질과 특성

한 명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글은 종류마다 특성이 있고 그에 맞게 글을 쓰는데서 나서는 요구가 있습니다. 글은 매 글의 특성과 그것을 쓰는데서 나서는 요구를 알고 그에 맞게 써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2권 394페이지)

정론은 해당 시대의 가장 절박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예리한 정치분석과 일반화, 강한 주정토로로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심오히 밝히는 선동성과 호소성이 강한 글이다.

정론을 잘 쓰기 위해서는 정론집필에서 나서는 요구를 잘 알고 그에 맞게 써야 한다.

정론집필에서는 정론적론단을 잘 내리는것이 가장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그것은 정론적론단을 잘 내리지 못하면 해당 문제에 대한 필자의 주장과 해명이 명백히 안겨오지 않게 되며 글에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것인지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없게 되기때문이다.

정론적론단을 잘 내리기 위해서는 그 본질과 특성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정론적론단을 예리하고 적중하게 내리는것이 정론집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데 대해서와 정론적론단의 개념과 정론적론단을 잘 내리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전에 논의되였다.

개념은 해당 문제의 본질을 해명하는데서 출발점으로 된다. 따라서 정론적론단의 본질을 밝히기에 앞서 이미 논의된데 기초하여 정론적론단의 개념을 먼저 정의해보기로 한다.

《조선말대사전》(증보판) 1[주체95(2006)년]에서는 론단이란 《논의한것을 평가하여 판단을 하는것》이라고 풀이하고있다.(1420페이지) 이로부터 론단에는 평가와 판단의 두가지 요소가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도서 《기사종류론》[주체100(2011)년]에서는 정론적인 론단이란 필자가 사회정치적문제를 논의하여 결론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글의 형식적요소라고 규정하였다.(137페이지)

정론적론단의 개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정론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개념정의가 명백하지 못한 부족점을 가지고있다고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정치적문제에 대한 논의는 정론만이 아니라 사설, 론설은 물론 다른 기사들에서도 진행된다.

그러므로 정론적론단의 개념을 이와 같이 정의한다면 론단에 대한 해명은 줄수 있어도 정론적론단과 다른 기사들에서의 평가 및 판단의 차이를 구별할수 없다.

정론적론단은 정론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그 개념에는 응당 정론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정론의 특성은 해당 시대의 가장 절박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철학

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며 그것을 감동적이며 격동적인 언어표현과 강한 주정토로를 통하여 격조높이 구가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정론적론단에 그대로 체현되게 된다.

정론 《심장에 불을 달라 혁명군가여!》[《로동신문》 주체88(1999)년 8월 23일]에 있는 정론적론단들을 실례로 들수 있다.

《우리 군대의 서리발같은 무적의 기개와 붉은기신념이 만탄창되어 울리는 합창은 온갖 어중이며중이들, 반혁명에 오염된 <정신병자>들의 머리를 말끔히 세척해내는 사상의 불소나기, 혁명의 불뢰성이다.》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은 총포성이 울리지 않는 붉은기수호전쟁의 최전방을 종군하는 최고사령부의 제일야전군이며 그 한편한편의 노래들은 이 땅에 진동하는 드세찬 승리의 포성, 원쑤의 심장부에 들썩워지는 사상의 포탄세례이다.》

《우뢰와 같이 울리는 공훈합창단의 노래는 지구상의 온갖 반동들과 배신의 무리들을 호되게 답새기는 주체의 맹렬한 포성이다.》

실례로 든 정론적론단들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필자의 논의가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격조높이 이루어지고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필자의 새로운 판단과 평가에 저도 모르게 공감하면서 내세운 문제의 본질과 의의에 대하여 다시금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내려지고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되였던 정론적론단의 개념을 다시 정의한다면 정론적론단이란 필자가 사회정치적문제를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격조높이 논의하여 결론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것이다.

이렇게 정의한 정론적론단의 개념에 기초하여 정론적론단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힐수 있다.

정론적론단의 본질은 정론의 종자와 주제사상을 짚은 논리로 해명하기 위한 주요론거로 되는 정론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라는데 있다.

정론에 정론적론단이 설정되는것은 정론에서 이야기하려는 사상적알맹이—종자를 쏘아내고 주제사상을 해명하기 위해서이다.

정론 《위대한 우리 인민》[《로동신문》 주체104(2015)년 10월 7일]을 실례로 들수 있다.

정론에서는 첫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정론적론단을 내리고있다.

《우리 당의 모습은 따로 있지 않다. 훌륭한 어머니의 모습이 훌륭한 자식들의 모습에 비껴있듯이 위대한 우리 당의 모습은 위대한 우리 인민의 모습에 어려있다.》

인민을 보면 모든것이 다 보인다. 우리 당이 높이 든 자주와 선군의 총대에도, 10월의 창공에 높이 날리는 우리 당의 붉은 당기에도 인민이 보인다. 동서고금에 오직 하나 조선로동당만이 펼친 백전백승에도, 천만이 안긴 그 따뜻한 어머니의 옷자락에도 인민이 있고 우리 당이 펼치는 눈부신 꿈과 모든 리상에도 인민, 인민이 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나온 기념정론인 이 정론에서 필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것은 어머니 우리 당의 위대성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필자가 정론의 제목을 《위대한 우리 인민》으로 달게 되였는가.

이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준것이 바로 실례의 정론적론단이다.

말그대로 우리 당의 모습은 따로 있지 않다는, 위대한 우리 당의 모습이 위대한 우리 인

민의 모습에 어려있기에 당의 품속에서 자란 훌륭한 인민을 노래함은 곧 위대한 우리 당에 대한 찬가로 된다는 가장 완벽한 대답을 이 론단에 심어놓은것이다.

뿐만아니라 이 론단은 정론의 주제를 제시할수 있는 전제로 되고있다.

《어찌하여 우리 당은 오직 인민의 모습에 담아서만 그 거룩한 영상을 우러러볼수 있고 과연 무엇으로 하여 70년의 장구한 행로는 물론 이 10월의 영광에도 인민이라는 이름이 가득차있는것인가.》

이 문장은 첫 정론적론단에 잇달린 대목으로서 정론에서 필자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 문제—주제를 명백히 제시해주고있다.

이와 같은 주제의 명백한 제시는 실례의 정론적론단을 잘 설정하였기때문에 문제점을 보다 뚜렷이 하는데 지향되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모습은 곧 인민의 모습이라는 정론적론단이 있었기에 《어찌하여 우리 당은 오직 인민의 모습에 담아서만 그 거룩한 영상을 우러러볼수 있는가.》라는 문제의 의의가 더욱 부각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주제는 다음의 정론적론단을 통하여 격조높이 해명되고있다.

《당에 있어 인민은 태어난 고향이고 존망이 달려있는 운명의 피줄이며 유일하게 지닐수 있는 영원한 힘이다. 당이 향도의 빛발이라면 인민은 그 무궁한 지혜의 저수지이고 당이 혁명의 기관차라면 인민은 그 동력이다. 당이 튼튼한 거목이라면 인민은 그것이 뿌리박고 선 땅과 같다.》

이 정론적론단에서는 어찌하여 우리 당의 모습을 오직 인민의 모습에 담아서만 우러러볼수 있는가에 대하여 《당에 있어서 인민은 태어난 고향》, 《존망이 달려있는 운명의 피줄》, 《유일하게 지닐수 있는 영원한 힘》이기때문이며 《당이 향도의 빛발이라면 인민은 그 무궁한 지혜의 저수지》, 《당이 혁명의 기관차라면 인민은 그 동력》, 《당이 튼튼한 거목이라면 인민은 그것이 뿌리박고 선 땅》과 같기때문이라고 명백한 해답을 주고있다.

이와 같은 정론적론단들이 정론전반에 적중하면서도 알차게 내려진다면 필자가 내세운 주장이 명백한 논의점들의 제시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것이며 정론의 감화력은 더욱 커지게 될것이다.

이처럼 정론적론단은 필자가 정론에서 말하자고 하는 기본핵—종자를 훌륭히 꽃피우고 주제사상을 해명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정론은 이러한 정론적론단들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체계가 이루어진다.

결국 정론적론단의 본질은 종자와 주제사상을 짜인 논리로 해명하기 위한 주요론거로 되는 정론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된다는데 있는것이다.

정론적론단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선 심오한 철학적발견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이다.

필자가 정론적론단에서 내리게 되는 평가와 판단은 해당 사회정치적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아니라 그것을 현실의 요구, 혁명발전의 요구에 비추어 어떻게 보고 인식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 다시말하여 철학적논의에 의하여 내려지는 새로운 평가이며 판단이다.

실례로 정론 《우리의 존엄》[《로동신문》 주체106(2017)년 2월 18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론적론단을 통하여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존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우리 원수님의 존엄은 다름아닌 위대한 조선인민제일주의에 있다. 그것은 우리 인민처럼 훌륭한 인민은 이 하늘땅 그 어디에도 없으며 따라서 우리 인민은 반드시 제일 강하고 제일 잘 살아야 한다는것,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다는 열화의 사랑과 절대적믿음에 근본바탕을 두고있다.》

이 론단에서는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존엄은 인민의 존엄과 리익을 절대시하고 제일로 내세우는 위대한 인민대중제일주의에 있다는 철학적정의를 내림으로써 천만군민으로 하여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인민관을 다시한번 새로운 경지에서 깨닫게 한다.

바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주성을 위한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사회정치적문제들을 취급하면서 새로운 철학적발견을 심어놓는데 정론적론단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다.

정론적론단의 특성은 또한 서정성이 매우 강하다는데 있다.

서정성은 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적형상의 속성으로서 흔히 시와 같은 문학작품들에서 논의되는 범주이다.

정론적론단은 이러한 서정성을 자기의 중요한 특성으로 하고있다.

정론적론단에서의 서정성은 해당 사회정치적문제에 대한 필자의 격조높은 론의로 하여 나타나게 되는 특성이다.

정론에서의 론의는 다른 글들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해당 사회정치적문제를 대하는 필자의 류다른 흥분과 격동속에서 진행된다.

시가 서정성이 매우 강한 작품으로 되는것은 시인의 강렬한 정서를 반영하기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필자의 강렬한 주장이 내려지는 정론적론단에서도 서정성은 언제나 표현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당세포가 있다!

폭풍에도 흔들림없을 이 영광과 긍지는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원한 총비서로 우리의 이 장엄한 진군길을 축복해주고계신다는 한없이 귀중한 감정이다.

우리에게는 당세포가 있다!

불에도 타지 않을 이 심장의 웨침은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우리의 당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따라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말 천만군민의 피끓는 신념의 분출이다.》[《로동신문》 주체102(2013)년 1월 25일. 정론 《우리에게는 당세포가 있다》중에서]

《우리는 평화앞에 언제나 정의로왔고 피와 목숨도 아낌없었고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했다.》[《로동신문》 주체102(2013)년 6월 25일. 정론 《6.25를 기억하라!》중에서]

《안된다는것을 해내는것이 조선사람이고 수천년세월 잠자던 대지를 흔들어깨운 력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사들이다.》[《로동신문》 주체102(2013)년 9월 20일. 정론 《젊어지라 복받은 대지여!》중에서]

실례의 정론적론단들에는 어느것이나 다같이 필자가 터치는 강렬한 주장이 반영되어 있다.

서정성이 보장되지 못한 정론적론단은 사실상 향기없는 꽃과도 같다.

정론적론단의 본질과 특성은 정론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점들을 시사해준다.

그것은 첫째로, 정론적론단을 잘 내리지 못한 정론 즉 필자특유의 평가와 판단이 주어지지 못한 정론은 생명력을 가질수 없다는것이다.

독자들이 정론에 심취되게 되는것은 바로 정론이 펼친 새로운 철학적세계, 사회정치적 문제점의 부각과 철학적발견의 참신성, 이론적깊이와 필자특유의 강한 주장토로에 매혹되기때문이다.

정론적론단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다 체현되게 된다. 때문에 정론에서 독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는 부분들은 거의 모두가 정론적론단에 해당되는 문장들이다.

정론필자들은 반드시 정론적론단의 본질과 특성을 깊이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독특하고 참신한 언어적표현으로 주장이 강하면서도 호소성있게 평가하고 판단함으로써 해당 사회정치적문제를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심오하게 해명하여야 한다.

문제점은 둘째로, 정론적론단의 매력이 단순한 말재주나 기교에 있는것이 아니라 사물현상의 본질과 사실, 사건에 대한 깊은 연구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명문장, 명문구로 인정되는 글들을 보면 모두가 다 사물현상의 본질을 뚜렷하면서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실례로 《당에 있어서 인민은 태어난 고향》이라는 표현도 순간의 령감에 의하여 착상된 그 어떤 기교가 아니라 우리 당과 인민의 호상관계에 대한 필자의 깊이있는 연구의 결과인것이다.

이와 같이 정론적론단은 사물현상을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파악하고 연구를 심화시킬 때에만 잘 내릴수 있다.

정론필자들은 정론적론단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깊이있는 리해에 기초하여 천만군민의 심장을 시대정신으로 세차게 격동시킬수 있는 훌륭한 정론들을 더 많이 집필발표함으로써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전투적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정론, 론단